

오피니언 리더



정성천

(주)한국영재교육발달연구소
광산교회집사

▶군중의 집단화

일반적으로 직업인으로서의 강사, 목사, 정치인, 유투버 등은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역량을 펼친다. 이런 직업인들이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역량이 보여 질 경우, 사람들은 필요, 호기심, 의무, 재미 등에 의해 그 직업인 주변에 모여들게 되고 머무르게 된다. 처음에는 상황에 관계없이 직업인에게 다가가기만 직업인이 보여준 가치관이나 지적 성향 및 행동양식이 입맛에 맞는다는 편견을 내린 사람은 그 직업인 주변에 오래 머무르거나 남게 된다. 반면에 직업인이 펼쳐는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자신에게 불필요하거나 자신의 뜻에 반하는 가치기준이라는 편견이 서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직업인의 성향이 어떻게 다가간 대중의 성향은 한 쪽

모여서 사람들은 이 직업인에게 온전히 사로잡힌다. 직업인 또한 군중이 원한다는 신념에 따라 자기 스스로 다양성과 객관성을 잃어가면서 서서히 편향된 주관성을 고착시킨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인이 펼쳐는 행위는 처음보다 훨씬 더 입맛에 맞게 군중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켜주므로 이 사람들은 직업인을 의지하고 따르게 된다. 이런 상태에까지 이르면 모여든 대중은 직업인의 요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직업인이 "앉아"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움직임을 보인다. 자신의 요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대중들을 보면서 "내 역량이 이렇 정도로 부족했어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자긍심이 결국에는 자존감을 지나쳐 진짜로 그들라는 내적 가치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우월 가치관 재정립

"난 이런 부분에 소질이 있어"라는 작은 마음이 "난 대단한 능력자가 아닐까?"로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난 탁월한 능력자다!"라고 믿게 되는 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에 이르면 직업인은 그동안 자신을 못 마땅해 하며 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을 패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상태에 이르게 되고, 오히려 이 사람들까지도 아직 믿기지 못한 사람들로 분류하여 모두를 충분히 불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다. 이쯤 되면 스스로 탁월한 능력자로 거듭난 직업인은 대대적으로 나서지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념

그들에게 드리는 헌사?

으로 100퍼센트 기울어 있지 않으므로 역량이 크든 작은 때날 사람은 떠나고 동조하는 사람은 일부일지라도 남게 된다. 역량이 있는 직업인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오래도록 남아있고, 역량이 적은 사람 결에는 적은 수의 사람이 짧은 시간 머무를 뿐이다. 역량이 뛰어난 직업인 결에 남은 사람들은 주변에 직 간접적으로 이 직업인을 알리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이 모여들게 된다.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또한 자신에게 알맞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직업인 결에 남아 머물게 되면서 사람들은 차츰 집단화 되어간다.

▶우월 가치관

역량 있는 직업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집단이 되면 직업인은 이 집단을 의식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에게 모여든 군중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진 강의, 설교, 정치활동, 언론활동을 하게 된다. 모여든 군중을 일부에 둔 이런 활동은 군중과 직업인을 동시에 편향하게 한다. 이 편향은 직업인과 그에게 모여든 군중은 하나의 이념으로 통하고, 하나의 가치 체계 안에서 교류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이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동조하는 것을 보더라도 자신들은 보편적이고 정확 명료하다는 신념을 갖는다. 이 신념은 시간이 더 흐르면서 차츰 직업인이 유도한 가치 성향을 지닌 집단으로 변해간다. 그러면서

에 따라 움직인다. 자신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증거로 내세워 자신을 패했던 사람들과 자신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탁월함을 펼쳐려 한다. 이때, 그들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직업인이 직접 다가갔기에 대부분은 수긍하지 않고 떠나게 되고 탁월한 능력자라는 자긍심은 상처를 받고 과거의 위치로 돌아가 소그룹 대중의 복종에 민중한다. 그러나 개중에는 수긍하는 다수를 또 남겨 더 큰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어 "나는 정말 탁월하다"라고 자신의 가치기준을 재정립하게 된다.

▶마이크와 복종

자신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고 재정립된 직업인은 자신을 패한 사람과 아직 다가오지 않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대적점에 서 있는 이들까지도 역량을 표출해야 할 대상에 넣고 자신의 편향된 주관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이 재정립한 탁월함에 의지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조정하면서 마이크를 잡는다. 마이크에서는 "너희는 나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외침이 흘러나온다. 탁월함의 대명사인 예수님은 대중을 복종 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비 탁월함을 보였었다. 탁월한자의 이 비 탁월한 복종이 우리에게 진정한 탁월함으로 다가오기에 믿음은 성립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달콤함에 빠진 대한민국(Sugarholic KOREA)을 구원하라!

-설탕과 같은 당류에 어릴 때부터 길들지 않게 하라-

2015년 보고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 평균 당류섭취량이 65.3g으로 나타났다(남성은 69.5g, 여성은 61.0g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은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높아 8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과거 2002년 WHO 하루 당류 섭취량(당류 50g)을 기준으로 해도 훨씬 초과한 상태이다. 특히, 청소년의 당류 섭취추천은 탄산음료 종류인데, 하루 평균 당류섭취 20g이 되어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 한 캔(355mL)에 약 40g 정도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 WHO 하루 당류 권장섭취량 25g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 캔에 코카콜라 한 캔(355mL)을 마시게 되면 이는 하루 당류섭취량의 160%에 해당된다. 청소년과 달리 30세 이상의 경우, 커피를 통한 당류 섭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대도시(67.6g)가 읍면지역(59.7g)에 비해 좀 더 당류섭취가 높다. 최근 2025년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국민 1인 평균 당류섭취량이 36~37g, 어린이-청소년-성인은 42~47g으로 나타나 10년 전보다 매우 좋아진 상태이지만 여전히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야 한다.

미국 농무성(USDA) 데이터베이스의 식료품 영양소 자료를 이용하여, 식품들내에 함유된 총 당류양이 조사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sugarstacks.com>)가 있다. 미국내 시판되는 청담음료, 디저트, 요구르트, 과일, 채소 등 식품종류에 따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총당류(total sugars)의 양이 나와 있다. 당류의 양을 각설탕 개수로 시각적으로 표시했을 뿐 아니라(미국 각설탕 한 개 무게는 4g, 국내는 평균 3g 정도), 설탕 칼로리까지 언급되어 있다. 비록 영문사이트이지만 하지만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다른 어떤 식품종류보다도 아이스크림에 상당한 설탕(또는 당류)이 녹아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반 컵(대략 100g)에는 설탕같은 당류가 20g 정도 들어있다. 인간의 혀는 온도가 내려가면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마비되어 단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인데도 상당히 단 맛을 느낀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설탕(또는 당류)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당류가 상당히 함유된 아이스크림이나 콜라같은 음료 섭취는 금기 사항이다.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저혈당 쇼크로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경우, 콜라를 마시게 하는 것으로 빠른 시간 내에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응급처치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달콤함에 빠진 대한민국(Sugarholic KOREA)을 구원할 수 있을까? 특히 설탕(당류)의 달콤함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껴줄 것인가? 먼저는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설탕과 같은 당류에 어릴 때부터 길들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부모가 깨어있는 것이 우리 자녀의 영육 간에 장전함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원재 교수

- 서울대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C) 박사학위 취득
- 중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약학대학 학장 및 상임대학원장 역임

선교칼럼



장찬익 선교사
아일랜드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저서, 이슬람선교의 몰락과

▶지나호에 이어서

그러나 이것은 쿠란의 주장인데 쿠란의 주장이 맞다는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역사적인 증거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장은 있으나 주장에 맞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쿠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부터 7세기까지는 아라비아반도 남쪽에 메카라는 도시가 없었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없었으니 무함마드도 없었을 것이고 무함마드가 없었으니 쿠란의 계시도 없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최초부터 7세기까지는 메카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고고학적인 유물

과 역사적인 증거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메카라는 도시가 형성되고 메카에 카바신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697년~698년에 우마이야 왕조 야르드 알 말리크가 카바신전을 요르단의 페트라에서 아라비아의 메카로 옮긴 697년~698년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카로부터 7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697년~698년의 메카의 카바신전전립기념비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카를 향한 모스크들이 처음

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은 선지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 AD 33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앞에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느니라(Before Abraham was even born I am)"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I am that I am 하나님, 간단히 줄여서 I am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I am이

단기선교사가 무슬림에게 전하는 복음전도-2

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715년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이로보아 메카에서는 쿠란의 계시가 없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쿠란은 언제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을까요? 아랍어 모음은 697년에 완성되었고 자음은 722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6세 쿠란사본의 연도는 가장 빠른 것이 8세기 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662년의 쿠란의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였다는 쿠란의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주장은 있으나 증거가 없다는 것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분명하게 이슬람의 신앙을 비판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단지 사실적으로 고고학적인 유물과 역사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슬람의 실체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오는 나누었던 전도방법과 내용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귀환 단기선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건물 매매·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란입니다.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임동(임동사거리 부근)
- 면적: 80평(2층)
- 금액: 보증금 2천5백만 / 월 80만원
※ 시비 있음
- ※ 3층 80평 (추가 사용도 가능)
보증금 2천만 / 45만원

010-5084-2002

교회당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우산동
- 면적: 대지 185평 (교육관, 식당)
2층-분당 90평 3층-약18평
별관-20평 사택
- 금액: 9억5천만원 ※ 사설비품, 성도 있음

010-2646-2691

예배당 매매

- 위치: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 면적: 대지 90평, 건물 22평
- 금액: 1억6천만원
- ※ 담양 예배사거리에서 거리에서 5분
- ※ 바로 앞에 깨끗한 우물있음
- ※ 텃밭있고 동네155가구 ※ 1년전 리모델링

010-5630-4531

건물 임대

- 위치: 서구 내방로 209번길4(상일여고 옆)
- 면적: 43평 (원3층, 화장실 2개, 대형거실, 모던한 주방, 거실 전경향 에어컨, 안방 발도 에어컨)
- 금액: 보증금 3천만 / 월 100만원
※ 발도의 권리금 있음

010-8430-5515

교회 임대(반지아)

- 위치: 서구 내방로 209번길4(상일여고 옆)
- 면적: 76평
- 금액: 보증금 1천만 / 월 70만원
※ 시설 권리금 있음
※ 비품은 없는 상태임

010-8430-5515

교회 임대/매매

- 위치: 남구 전월동 대주2차아파트 상가2층
- 면적: 34.5평 (예배당, 주방 겸 교육관)
- 금액: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임대가능)
1억2천만원(매매) 3천2백만 포함
성물집기포함 가격조정가능
※ 리모델링, 교통, 주차 편리

010-2200-8905

교회 상가건물 매매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군항로 182번(상가 4층)
- 면적: 대지 62평, 건물 13평
1층 - 인테리어 사무실(인수 후 편의점, 카페 가능)
2층 - 교회 / 3층 - 조정 사무실 / 4층 - 사택
- 금액: 6억(조정 가능) ※ 교회비품무로도 드림(교회비품 가능)
※ 교회 이전으로 매매, 기도원, 개척교회, 복자사설, 타종교가능 ※ 주변에 아파트 단지 있음

010-4154-7945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병설로 180 / 3층 (오리대들밥당)
- 면적: 약 40평(실용성)
- 금액: 시설권리금 7백만(조정가능)
- 보증금 4천만 월50만원(가세별도) / 권리비 5만
- 보증금 3천만 월55만 / 부가세, 권리비 55만
※ 전세비대도 시가소로알려, 시설면세, 화장실, 샤워실, 단독 2개 냉난방기 천정형.

010-2391-1663

교회당 임대

- 위치: 북구 우산동(2층)
- 면적: 40평
깨끗하게 리모델링 됨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비품 상당 후 결정

010-3618-5946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수원동
- 면적: 대지 66.6㎡ 연건평 1505㎡
지하1층-주차장 492㎡
지상1층-분당 376㎡
2층-교육관 385㎡ 3층-식당 251㎡
- 금액: 상입후 결정

010-7619-1491

교회 임대

- 위치: 광산구 도산동 (송정서초 근처) 2층
- 면적: 50평(예배당, 목양실, 유아실, 주방, 식당)
※ 깨끗하게 리모델링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50만원
※ 시설비품 상당 후 결정

010-9212-1474 / 010-4102-3092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신창로(신창지구)
- 면적: 대지 67평 건물 80평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부속건물-종이창고 유아실 방수실
- 금액: 7억 5천만원(매매) 2억5천5백만(모임)
※ 리모델링(건물경향도 및 면적)

010-9661-9099

교회 매매

- 위치: 북구 오치동 금호타운상가 2층
- 면적: 30평 (예배당 / 주방 겸 카페)
- 금액: 1억 5백만원
※ 리모델링 됨 ※ 교회비품 모두 무료
※ 주차 편리

010-2606-6529 / 010-6811-0656